

우리 동호회를 소개합니다

CBS 색소폰 앙상블 동호회 활동기

글. 박종인 CBS 기술국 국장



회원 모집을 위한 3주의 공고 기간과 1차 서류전형, 2차 인성 면접의 치열한 공개 선발 과정을 거친 후에 시작된 ‘CBS 색소폰 앙상블 동호회’ 발기인 모임. 그날이 어언 2011년 5월 19일이다. (창립한 지 10년이 훌쩍 넘어섰다.) 동호회 모임을 준비하는 동안 과연 몇 명이나 모여서 동호회 모임을 가질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며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시작한 ‘CBS 색소폰 앙상블 동호회’였다. 2011년에는 창립하자마자 사목이신 (故) 김영범 목사님의 성은에 힘입어 부활절 아침 직원예배 특송(4월), 직

원 아침 예배 특송(9월), 추수감사절 아침 직원예배 특송(11월)으로 분주한 한 해를 보냈으며, 2012년에는 제 1기 CBS 중보기도단 창립 예배 특송(1월), 부활절 아침 직원예배 특송(4월), 제2기 CBS 중보기도단 발대식 예배 특송(8월), 직원 출석교회 목사님 초청 예배 특송(9월)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색소폰 앙상블 팀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초창기는 단원들의 실력이 미비하여, 특송 연주에서 음이탈(소위 백사리)과 불협화음 등으로 관객들에게 웃음을 안겨 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무대를 겪다 보니 무대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탄탄한 연습이 더해져 만만치 않은 연주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바쁜 방송업무 중에도 매주 두 차례에 걸친 정기적인 모임을 마련하여 꾸준히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왔고, 자체 향상 음악회 개최 등으로 연주 실력을 키워 정신없이 수많은 행사를 뛰어다녔다.

동호회 결성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초지일관 변함없이 악장으로서 지도해 주신 임철호 국장(퇴직)의 눈부신 활약과 지도, 헌신으로 인해 색소폰 앙상블 팀은 든든한 기초를 다지며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다. (지면을 빌



사내 직원 아침 예배 특송, 2011년 9월 19일 CBS 교회

어 퇴직하신 임철호 국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기억에 남는 동호회 활동 내역을 하나하나 떠올려 본다.

Episode 1. 가족 초청 가을음악회

우선 ‘CBS 색소폰 앙상블 동호회’ 가족을 초청한 ‘가을음악회’이다. 동호회가 발족한 지 1년여 만에 갖는 대규모 행사였다. 화창한 가을 주말을 선택하여 CBS 능곡 AM 송신소 마당에 뷔페 음식을 우아하게 차려두고 아내(필수 초청대상)를 비롯한 가족들을 초대했다. 비록 서툰 솜씨였지만 정성을 다해 준비한 곡들을 독주, 2중주, 3중주, 단체 연주 등을 통해 들려주자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여태까지 준비하며 수고한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물론 우리들의 연주 실력도 더불어 향상되었다.

음악회를 마친 후, 가족들이 모여 준비된 음식과 대화를 나누었고 직장 선후배 이상의 가족애와 연대의식을 느꼈다. 이날의 모임은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길고 길게, 하염없이 이어지게 된다.

Episode 2. CBS 성탄 트리 점등식 행사 축하연주

2016년이 저물어 갈 무렵, CBS 사목실로부터 연락이 왔다. 올해 CBS 성탄 트리 점등식 행사에 축하연주를 해줄 수 있느냐는 부탁이었다. 색소폰 동호회가 연주해주면 점등식이 더욱 빛이 날 것이라며, 우리는 재고의 여지 없이 흔쾌히 승낙했다.

성탄 트리 점등식 축하연주를 위해서 우리는 한 달여의 시간 동안 맹연습을 거듭했고, 그 결과는 현장에서 바로 나타났다. 행사는 CBS 사장 이하 많은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됐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징글벨’, ‘실버벨’, ‘루돌프 사슴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등의 다양한 캐롤곡을 연이어 연주하면서 흥을 돋우자 CBS 임직원과 건물 내를 드나드는 많은 사람이 함께 손뼉을 치며 자연스럽게 어우러졌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 CBS 성탄 트리 점등식 축하연주, 2016년 12월 01일 CBS 빌딩 1층 로비
▼ 가족 초청 가을음악회, 2012년 10월 13일 CBS 능곡 AM 송신소





CBS 직원(기술국 임철호 국장) 딸 결혼식 축하연주, 2019년 9월 21일



고양 천사의 집 장애인 시설 방문 성탄 축하연주, 2019년 12월 24일

Episode 3. CBS 직원(기술국 임철호 국장) 딸 결혼식 축하 연주

2018년 12월 09일 기술국 천재복 국장의 장로 임직 예배 축하연주(기자촌교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자체 향상음악회를 통해 실력을 갈고닦던 중에 우리 'CBS 색소폰 앙상블 동호회'의 영원한 악장이신 임철호 국장이 딸의 결혼식 축하연주를 의뢰해왔다. 우리 동호회원들의 자녀가 시집, 장가갈 때 축하연주를 해주기로 굳은 약속을 했기에 지체없이 연습에 돌입했다.

결혼식 당일 혼주인 임철호 국장의 색소폰 독주와 우리 동호회의 축하 합주로 결혼식 자리는 잔치 분위기가 더욱 달아올랐다. 특히 신부 아버지인 임철호 악장의 독주는 이날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는 물론 하객들에게 진한 감동과 여운을 안겨주었다. 하객들의 박수와 함성에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퇴장하니 색소폰 연주를 시작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색소폰이라는 악기 하나로 많은 보람된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의 기도가 저절로 흘러나왔다.

Episode 4. 고양 천사의 집 장애인 시설 방문 연주

성탄절 전날인 2019년 12월 24일, CBS에서 회사 연말 행사의 일환으로 장애인 시설을 방문하기로 확정하고, 우리 색소폰 앙상블 동호회에 함께 동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성탄절 분위기를 띄우는데 색소폰 연주만 한 것이 있으랴~

우리는 흔쾌히 승낙하고 다시 연습에 정진했다. 연습 없이 무대에 서는 것은 관객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우리 자신도 절대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연습 일정을 세우고 악장의 지도하에 체계적인 연습을 진행했다.

행사 당일, 고양 천사의 집 대회의실에서 성탄을 축하하는 색소폰 연주가 연이어 흘러나왔다. 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흥에 겨워서 노래도 함께 부르시고, 일어서서 덩실덩실 춤을 추기까지 했다. 행사가 모두 끝난 후에 천사의 집 원장님께서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색소폰 팀이 연주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라며 기쁨에 들떠하시는 말씀과 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에 감동과 보람을 느꼈다. 이때만 해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출현하여 전 세계를 공황 상태에 빠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Episode 5. CBS 직원(기술국 박세경 국장) 장로 임직예배 축하연주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면서 'CBS 색소폰 앙상블 동호회'는 모여서 연습조차 할 수 없었다. 점심시간이나 퇴근 시간 이후에 방송국 스튜디오 또는 AM 송신소에서 연습을 주로 했었는데 그마저도 모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다.

(색소폰 소리가 너무 큰 관계로 연습실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방송국 직원들은 연습할 조건은 상대적으로 좋다. 일반적인 색소폰 연주자들은 연습할 곳이 없어서 한강 변, 산속, 지하주차장 차량 내부, 심지어 집에서는 담요를 뒤집어쓰고 연습한다.)

2020년 2월 20일 인천 소재 노인데이케어센터 방문 위로 연주회와 2020년 12월 26일 동호회원인 주철 국장 아들 결혼식 축하연주는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 연이어 취소되었다. 이렇게 우리 동호회가 암흑기를 거치던 중 2021년 가을에 CBS 직원의 장로 임직예배 축하연



CBS 직원(박세경 국장) 장로 임직예배 축하연주, 2021년 11월 21일 예본교회

주 의뢰가 들어왔다. 우리 ‘CBS 색소폰 앙상블 동호회’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연습하기도 여의치가 않고 임직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가서 연주해도 팬찮을 지를 심사숙고했다. 교회 측에서는 축하연주를 대환영한다는 입장이어서 연습 기간을 최소화하고 연습 장소인 CBS AM 송신소 건물도 최대한 환기해가며,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연습하기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우여곡절 끝에 축하연주의 자리에 섰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로 거의 2년여 만에 처음 갖는 연주회 자리이기에 단원들은 감개무량했다. 또한 참석한 축하객들의 뜨거운 반응과 감사 인사에 다시 한번 보람을 느끼며 뿌듯한 마음으로 행사 장소인 예본교회를 나섰다. 또 언제 다시 모여서 합주를 할 수 있을지는 기약할 수 없다. 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어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은 많은 우리 ‘CBS 색소폰 앙상블 동호회’는 미래의 활동에 대한 준비에도 여념이 없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직원들의 신앙증진에 일익을 담당하며, CBS 이미지의 제고와 간접선교 활동에 앞장서자는 동호회 창립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려 몸부림치며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고자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고, 양천구민과 함께하는 CBS 광장에서의 연주회 개최 등을 목표로 회비를 적립하며 일로매진하고 있다.

이제 우리 동호회는 마스크 없이 모여서 마음껏 호흡하며 들숨 날숨으로 색소폰을 윈 없이 부는 날을 애타게 기다린다.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색소폰 같은 관악기보다는 현악기나 타악기가 연습하기가 수월하고 안전하다.)

향후 제2기 신입회원을 맞이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려고 고치 속에서 탈피를 준비 중이다. 비상을 꿈꾸며, 웃음과 감동을 함께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CBS 색소폰 앙상블 동호회’에 격려와 성원을 지속적으로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 CBS 색소폰 앙상블 동호회 주요 활동 내역

- 2011년 05월 19일 색소폰 앙상블 동호회 발족
- 2011년 09월 19일 CBS 직원 아침 예배 특송
- 2011년 11월 21일 CBS 직원 추수감사예배 특송
- 2011년 12월 15일 CBS 기술국 송년회 특송
- 2012년 01월 19일 제1기 CBS 중보기도단 창립예배 특송
- 2012년 04월 05일 CBS 직원 아침 부활절 예배 특송
- 2012년 08월 30일 제2기 CBS 중보기도단 발대식 예배 특송
- 2012년 10월 13일 가족 초청 가을음악회 여행 (CBS 능곡 AM 송신소)
- 2012년 12월 04일 성탄 트리 점등식 축하연주
- 2013년 04월 18일 퇴직 선배 초청 연주회

2014년 이후 앙상블 동호회는 회원들 다수가 회원들의 대거 지방 발령(지역 총사령관인 본부장으로, 경인 지역 센터장, 본사와 지역 방송본부 국장 등으로 발령)으로 ‘CBS 색소폰 앙상블 동호회’는 거의 해체 위기에 처하면서 암흑기를 거친다.

2015년부터 지역국으로 발령 났던 동호회원들이 서울 CBS 본사로 속속 복귀하면서 재정비를 시작한다.

- 2016년 12월 01일 CBS 성탄 트리 점등식 축하연주
- 2018년 12월 09일 천재복 국장 장로 임직예배 축하연주 (기자촌 교회)
- 2019년 04월 22일 부활절 직원 아침 예배 특송
- 2019년 07월 12일~13일 향상음악회 겸 MT (양평, 1박 2일)
- 2019년 09월 21일 임철호 국장(악장) 딸 결혼식 축하 연주
- 2019년 12월 24일 고양 천사의 집 장애인 시설 방문 성탄절 축하 연주 (CBS 공식 행사)
- 2020년 01월 16일 신년회 및 향상음악회
- 2021년 11월 21일 박세경 국장 장로 임직예배 축하연주 (예본 교회)

앞으로도 이 여백이 10년, 20년 뒤로 이어지며 화려하게 채워지기를 기대하며 글을 맺는다. 🎷